

Contents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 코로나19로 세계 항만 인력난 지속



물류정책 · 산업동향

1. 페덱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개선 추진
2. 머스크, 2분기 물동량 20~25% 감소 전망
3. 북미 제조업체 64%,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고려
4. ONE,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컨테이너 직항 서비스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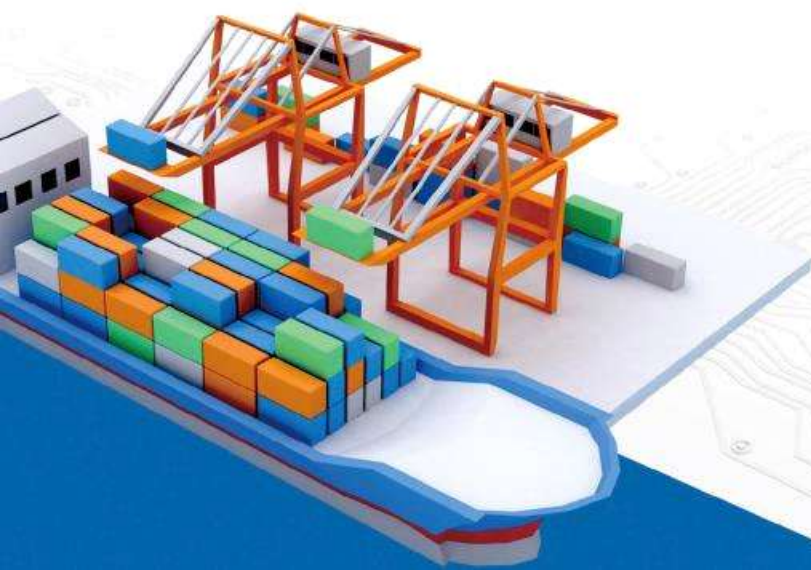
공지사항

-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 *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명사 스피치

“클라우드 기반 컨테이너 검색정보 데이터 처리 및 이종(異種) 시스템간 연계를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다양한 검색정보를 활용한 항만 컨테이너 정보 서비스 신산업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
(2020. 5. 21 /쉬핑데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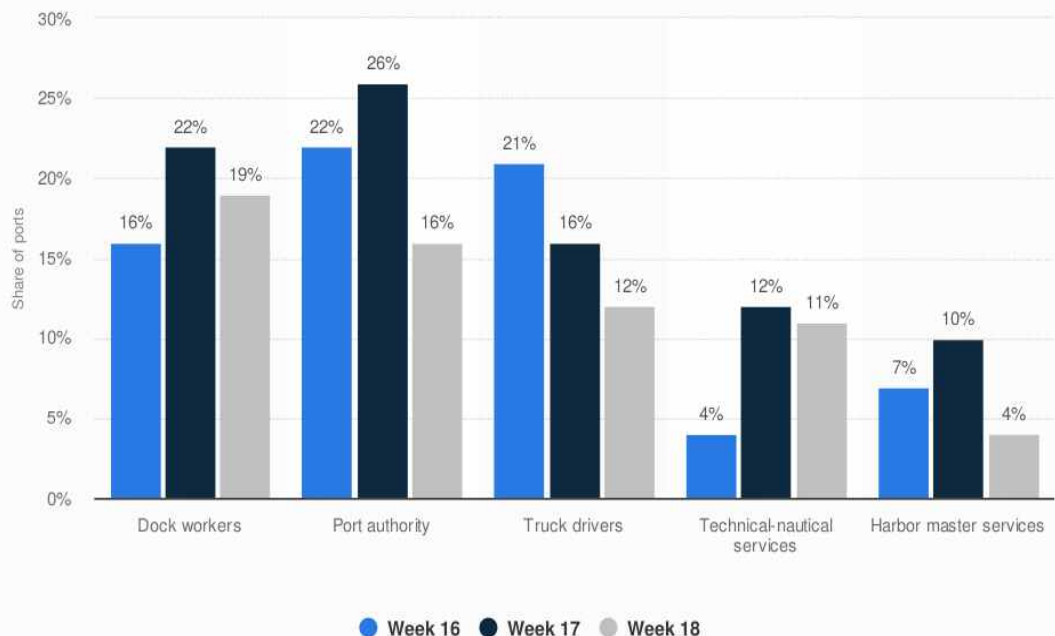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국제물류

코로나19로 세계 항만 인력난 지속

코로나19로 인한 부문별 인력 부족 발생 항만 비율

자료 :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114355/worker-shortages-at-ports-covid-19/>

- 통계정보 제공기업 Statista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전 세계 항만은 여러 부문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¹⁾
 - 가장 큰 인력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항만당국이며 2020년 16주차에 22%, 17주차에 26%의 항만당국이 인력부족을 보고함
 - 또한 16주에서 17주 사이에 부두작업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는 항만의 비율도 16%에서 22%로 증가함
 - 한편 해상기술 서비스 부문 인력부족을 보고한 항만은 16주차 4%에서 17주차 12%로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18주차에 접어들면서 인력부족 현상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부두작업 인력의 경우 약 20%의 항만에서는 여전히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고자료 : www.statista.com(검색일: 2020.5.19)

김가현 전문연구원

051-797-4692, ghkim@kmi.re.kr

1) 조사는 전 세계 항만관계자 7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은 유럽 38%, 중남미 29%, 아프리카 4%, 동남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7%(뉴질랜드 및 태평양 제도 포함), 북아시아(중국, 한국 및 일본 포함) 3%, 북미(미국 및 캐나다) 18%, 중동/중앙아시아(아라비아 걸프 및 인도 아대륙 포함) 1%로 구성됨



페덱스,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을 통한 공급망 개선 추진

- 페덱스(FedEx)는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및 배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파트너십을 체결함
 - 페덱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5월 18일 데이터 분석 기반의 공급망 개선을 위한 다개년 파트너십을 체결함
 - 마이크로소프트는 페덱스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파트너십의 핵심은 화물 운송 및 배송 등 공급망의 실시간 데이터 제공이 핵심임
 - 양사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FedEx Surround' 솔루션 개발을 통해 실시간 배송 추적 및 분석 기능을 제공할 예정임
 - 해당 솔루션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주문 및 배송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자연재해 및 운송 오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더욱 더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재고비용 절감 등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양사는 향후 추가적인 솔루션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등 물류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페덱스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네트워크 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거 공급망 운영에 제한적 요소들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자사 공급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 www.pymnts.com(검색일: 2020.5.19).

김동환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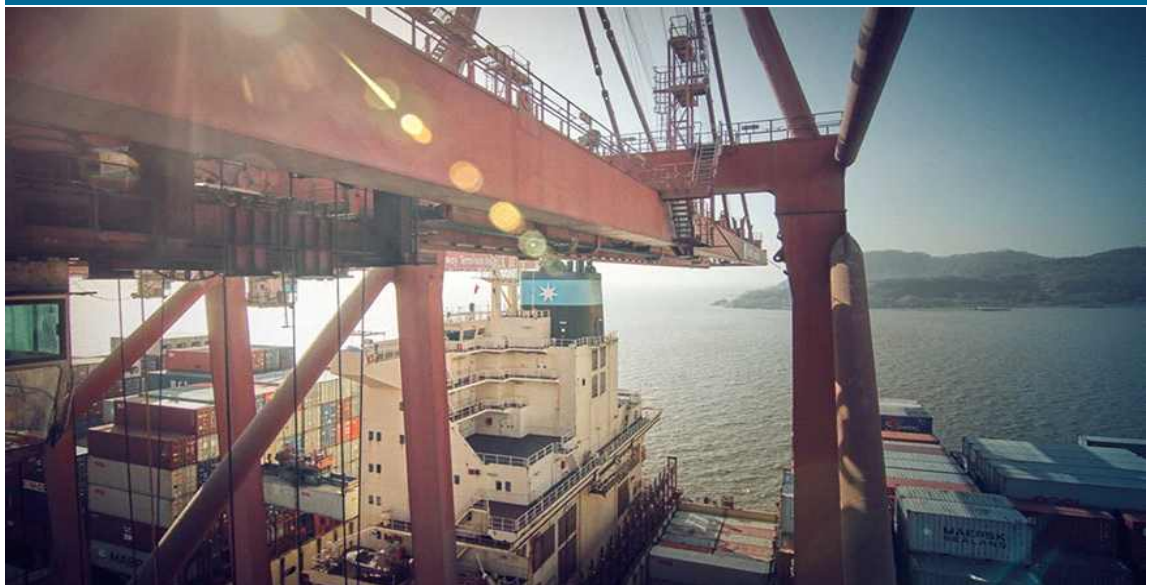
051-797-4913, kdong@kmi.re.kr



머스크, 2분기 물동량 20~25% 감소 전망

- 머스크, 코로나19 영향으로 2분기 물동량 감소 전망
 -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AP Moller-Maersk는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2분기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5%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함
 - 머스크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고경영자 소렌 스쿠는 2020년 글로벌 교역량이 사상 최대폭으로 감소할 것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함
 - 2020년 글로벌 교역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13~23% 감소, IMF는 11% 감소를 전망함

코펜하겐항의 머스크사 전경



자료 : <https://www.maersk.com>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교역량 회복의 걸림돌
 - 머스크는 글로벌 교역량이 올해 말까지 의미있는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코로나19에 따른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함
 - 글로벌 교역량 회복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여부 및 보호무역주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검색일: 2020.5.19.), www.maersk.com(검색일: 2020.5.19)

김성아 전문연구원

051-797-4792, ksa@kmi.re.kr

북미 제조업체 64%, 코로나19 이후 리쇼어링 고려

- 북미 제조기업 중 64%가 향후 코로나19 대유행(pandemic)과 유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제조생산과 구매부분을 북미로 다시 가져올(리쇼어링, reshoring) 것이라고 응답함
 - 지난 4월 북미 최고 산업 소식 및 마케팅 플랫폼인 토마스(Thomas)사는 878명의 북미 제조 및 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북미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토마스사의 CEO인 토니 업호프는 "실시간 자원 관리, 중복성, 리쇼어링, 디지털 및 물리적 공급망 간의 융합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제조업은 인근 국가에서 아웃소싱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체 응답자의 28%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 많은 생산과 구매를 북미로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으로 공급자와 공급망 파트너의 붕괴가 어떻게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는지 파악한 사업자들은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이 해결책의 하나라고 인식함
 - 중국발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초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많은 미국 기업들이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구할 수 없었고, 토마스사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64%는 회사가 중요하지 않은 부품 공급 등의 중단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함
 - 맥킨지가 발표한 이번달 보고서에서는 유럽 의류회사는 북미 업체보다 니어쇼어링 선택권이 많아 주문을 취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언급함
- 비즈니스 컨설팅업체인 커니(Kearney)사가 발표한 '2019년 리쇼어링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의 리쇼어링이 증가했는데, 코로나19 발생으로 이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의 제조업 생산은 6조 2,710억 달러로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아시아 14개 저비용국가(low-cost countries)²⁾로부터의 공산품 수입은 8,160억 달러(2018년)에서 7,570억 달러(2019년)로 연평균 7.2% 감소했음
- 2019년 총생산 대비 수입비율(MIR, Manufacturing Import Ratio)이 98bps(basis points) 상승한 것은 미국 리쇼어링 지수에서 유례가 없는 값임
 - 미국 리쇼어링 지수는 기준으로 표시되는데, 1% 변화가 100으로 표시됨
 - 미국 총생산 대비 수입비율(MIR)의 변화로 나타내는 리쇼어링 지수(reshoring index)는 13.058%(2018년)에서 12.077%(2019년)로 0.98% 포인트 증가해서 98bps로 표시됨
 - 2019년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08년 이래 처음으로 순리쇼어링(net reshoring) 값인 98bps를 기록함
- 기업들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미래의 사건을 주시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 컨설팅업체인 PwC는 전 세계 공급자들이 다시 온라인에 접속함으로써 이러한 리쇼어링에 대한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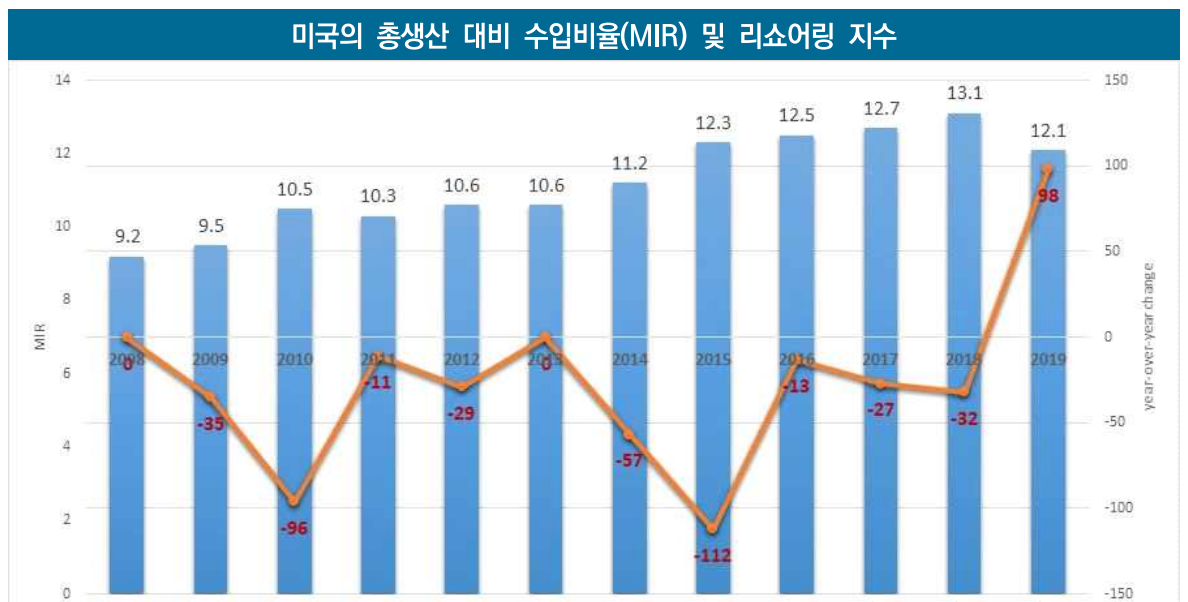
2)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홍콩,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 줄었다고 언급했으나, PwC 부사장 겸 최고 고객 책임자인 아미티 밀하이저(Amity Millhiser)는 기업들은 미래에 발생할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함

- "2020년 새로운 질서의 붕괴와 함께 밝았다: COVID-19(2020 dawned with a disruption of a new order of magnitude: COVID-19)" 연구의 공동 저자인 브룩스 레버링은 이번 위기의 가혹한 교훈으로 기업들은 구매 전략 수립 등 전체 공급망 계획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함

-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사태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 아닌 멕시코, 베트남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등의 공급망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우리나라 항만과 해운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 Kearney, "Trade war spurs sharp reversal in 2019 reshoring index, foreshadowing COVID-19 test of supply chain resilience", 2020, pp.2-3 기반 재작성

참고자료 : www.supplychaindive.com(검색일: 2020.5.14.), www.eft.com(검색일: 2020.5.4)

이연경 연구위원

051-797-4682, eklee@kmi.re.kr

ONE,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컨테이너 직항 서비스 시작

- ONE(Ocean Network Express)은 중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컨테이너 직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며, 상하이에서 6월 6일 CMA CGM 버지니아 선박이 출항할 예정임
 - ONE는 싱가포르와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 컨테이너 운송회사임
 -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서비스는 상하이-닝보-쉈커우 등 중국 항만을 거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가바야, 필리핀 마닐라를 거쳐 상하이로 돌아오는 운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또한 ONE은 콜드체인의 수요 증가에 따라 냉장 컨테이너를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음
 - 첨단제어 기술이 장착된 200대를 포함해 5000대의 냉장(냉동) 컨테이너를 운영 중임
 -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냉동 컨테이너에 적용하여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 습도와 같은 주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ONE의 중국-인도네시아 서비스 항로



자료 : <https://www.one-line.com/en/news/one-offer-first-direct-coverage-china-indonesia-new-cid-service>

참고자료 : www.seatrade-maritime.com(검색일: 2020.5.18.), www.one-line.com(검색일: 2020.5.18.).

권보배 전문연구원

051-797-4774, b2kwon@kmi.re.kr



공지사항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수정공고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 모집과 관련하여(20.2.24 시행)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합니다.

	현 행	수 정
접수 기간	○ 2020.2.24.(월) ~ 2020.4.3.(금) 18:00까지	○ 2020.2.24.(월) ~ 2020.5.28.(목) 18:00까지

2020년 3월 23일

해양수산부 장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대상 기업 모집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활성화와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활성화하고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를 조성하고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본 사업의 세부사업인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 대상자

-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2. 대상 사업

- ☐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

구분	사업 내용
일반진출형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인수합병형	현지 물류기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시설투자형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시장 물류사업 (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하는 유형

3.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 지원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경제·기술·재무·법률 등 측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보조

□ (지원규모) 대상사업의 유형에 따라 1건당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인수합병형/시설투자형) 최대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조사비용의 50% 보조

《 타당성조사 보조금 지원 기준 》

구분	지원 비용	지원비율
일반진출형	최대 5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인수합병형	최대 8천만원	조사비용의 50%
시설투자형		

□ (지원내용) 보조금 수혜기업이 국내외 연구기관 및 컨설팅 업체 등에 의뢰한 타당성조사 관련 **용역비용**(계약기준)에 대해서만 지원

* 수혜기업의 자체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인정되지 않음

2020년 화주-물류기업 해외동반진출 지원 대상 모집 안내

1. 신청대상자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유통·무역·건설·자원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의 관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2. 대상 사업

- **(개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 생산시설 판로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물류기업은 화주기업의 물량을 매개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거점·네트워크 확보, 현지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

□ 대상사업 유형 예시

- ① **(동시진출형)**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화주기업은 해외에 신규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이와 동시에 물류기업은 신규로 진출하는 시장에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② **(화주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물류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화주기업**과 협력하여 현지 물류거점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③ **(물류주도형)**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화주기업이 **현지에 먼저 진출한 물류기업**과 협력하여 생산시설·판로 확보, 법인설립 등을 추진하는 경우
- ④ **(현지협력형)** 현지에 진출한 화주·물류기업이 협력하여 신규 생산시설·판로·물류거점 확대, 신규법인 설립 등 각자의 사업영역 확장을 추진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화주·물류기업 간 동반진출 협력과정에서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판매 등에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공동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약 4천만원)까지 보조금(국비)을 지원 하며, 나머지 기업부담분은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협의하여 부담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보조금 교부 예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보조금 교부 및 컨설팅 수행조건 등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체결해야함

○ (컨설팅 수행) 컨설팅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물류기업 또는 화주 기업)이 직접수행*을 원칙으로 하나, 컨소시엄 협의 하에 선정된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자문 또는 컨설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3의 국내외 전문기관·업체 등에 컨설팅 전체를 위탁 수행 할 수 있음. 단, 컨설팅 전체 위탁 시에는 신청기업의 자체 활동 비용(예: 직원의 해외 출장비, 인건비 등)은 지원 대상에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4(월) 09:00 ~ 2020. 5. 28(목) 18:00 까지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①	신청서 1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1
②	사업제안서 10부	서류, 전자파일 함께 제출	양식 2
③	정보 제공 및 공개 동의서 1부		양식 3
④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행		
⑥	최근 3년간 기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⑧	그 밖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 컨소시엄 형태 신청기업의 경우, 사업제안서를 제외한 서류를 참여 기업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함

※ (가산점) 유효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서(국토부 및 해수부 장관 발행) 제출하여야 함

□ 접수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주소 :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전자파일 저장매체(USB) 동봉)

* e-mail 접수 불가

선정 기준 및 방법

□ 선정 기준

-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평점 60점(100점 만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예산의 한도 내에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며, 그로 인해 실제 보조금 교부금액은 지원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별도 공고 또는 신청기업 개별 통지
- 신청기업은 7인 내외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사업제안서 내용*을 발표 (발표 20분, 질문·답변 10분)

* 사업제안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e.g. PPT, PDF 등)로 발표 가능

□ 선정결과 발표 : 평가 이후 공고 또는 개별 통지

유의사항

- 신청서, 사업제안서 등 양식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 전체 또는 일부 위·변조 혹은 허위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누락 혹은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 ☐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정기설문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4, 051-797-4913)로 문의 바람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 ☐ 「2020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사업설명회 영상 유튜브 (Youtube)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음

* 설명회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dN7VaBnP6zY&feature=youtu.be>